



독자가 쓰는 2004 지상캠페인 한국 불교 달라져야 한다

복지불사에 더욱 박차를

불교 내지 교단의 변화모색은 석가 모니 부처님 재세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과제이자 성찰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았고, 현실 속에 적용하는데 충실해 왔다.

불교의 변화는 엄격히 말해 교단의 변화 또는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교단이나 구성원의 전도된 모습에서 다시 부처님의 본래적 가르침으로 여백하게 돌아가느냐에 변화의 평가는 엇갈려 왔다.

우리는 불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해탈이라고 배워왔다. 이 해탈을 이룰 수 없는 이상향으로만 바라본다면 불교의 발전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불자나 교단이 해탈을 목표로 삼아 자비분과 지혜문을 사회 각계각층, 생활 저변에서 수행삼야 실천하면 승단 인식 변화로 활기 찾아야



계가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들은 대부분 건실한 운영을 통해 서민계층에 희망을 주고 있다. 또한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자비라는 명제가 얼마나 이 사회에 큰 등불인가를 일깨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불교계는 사회복지사업을 중요한 대사회불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교계 모 신문사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스님들의 50% 가까이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 결과를 보았다.

보고 우리 불교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사회복지의 '필요' '불필요'를 따질 분야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분야다. 자비의 수행덕목을 그 어느 종교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불교계에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야 실천하면 이미지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불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자비라는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해탈의 문으로 나아가는 종자를 싹 틔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불교의 역할은 그만큼 절실하다. 사회복지가 곧 중생구제요 불은(佛恩) 회향의 공덕을 쌓는 사업이며,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비실천의 수행이 활성화될 때 불교는 변화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의지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이준성(부산 남구 용호동)

포교의 '틀' 바꾼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정체성 확립 등 10대 과제 선정

조계종 포교원이 내년 1월로 다가온 별원 승적 10주년을 앞두고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신도교계 확립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0대 핵심 과제는 △신도 정체성 확립 △핵심신도 양성 △신도 교육 수행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포교행정시스템 구축 △포교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화 △미디어 포교 활성화 △종단 의례의식 한글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 △도시포교 활성화 △국제포교 활성화 등이다.

10월 22-24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조계종 신도 정체성 확립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워크숍에서는 또 종단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강화선 수행이라는 전

제하에 △조계종학의 정립 △신도 위계정립을 통한 조직화 △신도 수계단계 체계화 △신도법계제도 연구 △간화선 지도자 양성 및 네트워크 형성 △참(좌)선 생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민선방 지원 및 관리 △간화선센터 운영 △참선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세부 사업들이 제안됐다.

10대 핵심과제 하에 제안된 사업은 이외에도 신도교육 인프라 구축, 포살법회를 통한 사부대중 신행공동체 형성, 사찰음식박람회, 영상포교행정체계 수립, 불자 사회 네트워크 구축, 포교 콘텐츠 개발 로드맵 작성, 한글 상용의식 집 간행, 보급 통한 의례의식 통일화, 1사람 1습덕 갖기 운동, 관홍상제 프로그램 운영, 한국불교 해외 홍보시스템 구축 등 130여개

에 이른다.

과제와 사업은 11월 중순경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워크숍에서 박희승 포교연구실 차장은 "중생에게 불법을 가르쳐 부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포교이념이었다면 우리가 본래 부처님을 알려주는 것이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신도교이념"이라고 전제한 뒤 "종단 차원의 전략과 포교시스템, 인재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재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해마을=김지연 기자

밀교학술대회 日서 열린다

진각종·고야산大 12월13일, 체험행사도

밀교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교류대회가 한·일 양국 밀교종단 관계자와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에서 열린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과 일본 고야산대학 밀교문화연구소(소장 나마이지 쇼)는 12월 13-17일 와카야마 고야산대학에서 '한·일 국제학술교류대회와 밀교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밀교행복의 금강계37존'을 주제로 12월 14일 열리는 학술교류대회는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장사와 오지 고야산대학 문학부장의 양국 밀교와 금강계 37존에 대한 기초강연, 양국 학자들의 논문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진각종은 이번 한·일 국제교류대회에 효암 통리원장, 혜정 교

육원장 등 종단 주요 인사와 밀교학 관계자 등 5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범어사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지난 2001년 범어사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19억여 원의 횡령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10월 28일 문화재청에 의해 내려졌다. 이번 환수 조치된 19억여 원은 국고보조금과 국·시·도를 포함한 22억 중 공적금 3억을 제외한 19억 9천만 원으로 19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당시 범어사 재무국장 스님에 의해 횡령된 것으로 알려진 금액 전액이다.

총 51억 여 원의 국고보조금 중 공사비로 쓰인 약 30억 여 원의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천미희 기자



법계 받들어... 조계종 제4회 3급 승가고시시험이 10월24일 김천 직지사에서 회향했다. 이번 승가고시에 응시한 54명, 비구니 50명 등 총 104명의 승합 10년차 스님들이 응시했으며 이중 비구 44명, 비구니 49명 등 총 93명의 스님들이 합격해 중덕과 정덕 법계를 받았다. 사진=배지선 기자

“종교단체 고유 규율 적용돼야”

조계종 선암사대책위, 대법원에 탄원서

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대책위원회(위원장 무관·조계종 총무부장, 이하 선암사 대책위)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10월 29일 대법원장 앞으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세속의 재판부가 종교 단체 내부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 모자란 사법적 판단과 기준만으로 재판한다면 어찌 종교 단체의 품격과 권위를 지켜갈 수 있겠냐"며 "사회법과 종교 단체 고유 규율이 구분돼 적용돼야 할 기본적인 경계는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사회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종단의 기강을 흔들거나 종교 단체 고유의 본분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며 탄원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호계원(원장 율서)은 "종단화합과 중무행정의 질서를 파괴한 자에 대해 재판부가 종단 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종교 질탈자 처벌행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분단 상처 치료하는 상징...” 금강산 신계사 상량문 공개

11월 20일 낙성식이 봉행되는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의 상량문이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공개됐다.

신계사 대웅보전 상량문은 금강산 신계사의 역사와 연혁, 복원불사의 의미 등을 790cm 길이의 한지에 기록했다. '강원도 고

성군 금강산 신계사 복원 상량문' 제하의 글은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이 지었으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위원장 종상)가 감사하고 조종래 조계종 총무부 부국장 지었다.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는 "신계사 복원 불사는 민족의 분열된 마

음을 화해시키고 분단의 상처를 치료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통일불사인 신계사 복원에 즈음해 부처님 전에 상량문을 올리고 세세손손 그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본지 497호 14면 '김충현 은관·송춘희 씨 화관' 기사 중 '광우 스님(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광우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으로 고쳤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의 징계처분 등 효력정지 및 주지임명 절차이행금지 가처분 (2004카합1969) 결정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은 조계종단의 종헌 기구로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며, 율장에 근거하여 제정된 승려법에 의거 수행자가 충분히 참회하고 자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정확한 조사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심판하는 교단 내의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계율은 교단을 유지 운영하는 근간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 부처님의 율장에 근거하여 수행자를 경책하고 근신·참회토록 하는 것이 승단 고유의 징계체제이다. 징계를 받은 수행자는 자숙하고 참회함으로써 대중의 화합을 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태도이며 행해라 할 것이다.

전 선암사 주지 김용민(정야)은 종단의 일원으로서 종단 징계에 불응하고 징계에 정면으로 대응, 이를 사법기관에 제소하였다. 이는 종단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신성한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무지몽매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받아 들여 부산 선암사의 전임 주지 김용민(정야)에 대한 조계종단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조계종단에서 새롭게 임명된 주지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종단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김용민(정야)을 직무대행자로 한다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단의 화합과 중무행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자에 대하여 재판부가 종단내의 자율적의사결

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종교단체내의 자율적 판단을 세간의 잣대로 재단하고 사회법으로 저울질하는 재판부의 종교 침탈이요, 횡행행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명백한 조사와 호계원법의 절차상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예단과 추론만으로 판결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고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심각한 교권 침해이다.

우리 호계원의 호계위원들은 종교 내부의 질서와 규율을 해하려는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선암사의 유구한 역사와 삼보정재를 사유화하려는 김용민(정야)의 불순한 의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금번 결정은 한국불교의 장자 종단인 조계종단의 교권을 심각히 훼손한 매우 오만하고 부당한 결정이며 종단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려는 음흉한 결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진정한 정의, 진실을 묵살하고, 부정하고 그릇된 이의 손을 들어 준다면 이 땅에 정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부의 오판과 사시화된 시각을 바로 잡아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불전에 맹세하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과 부산 선암사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호계위원 일동은 종단의 자주성 회복을 천명하고 올바른 법의 정신이 회복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2548(2004)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김월서의 호계위원 일동